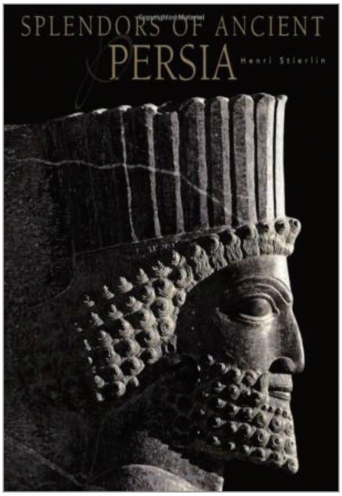

제목	Splendors of Ancient Persia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White Star Publishers
발행일	2006. 12. 5.
저자	Henri Stierlin
출판국가	미국
페이지수	288
ISBN 또는 ISSN	978-8854401464

내용 요약

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고대 근동지역에서 발달한 주요 문화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토대로 페르시아 예술에 대한 선명한 컬러 도판사진과 일러스트화한 자료를 담고 있다. 이러한 자료는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 5000여년 전 페르시아 고원에 정주하였던 지로프트(Jiroft)인들의 예술작품들이 발굴됨에 따라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재조명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.

내용을 보면 이오니아로부터 그리스 건축가들과 조각가들을 고용한 키루스와 다리우스의 거대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5년에서 10년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말릭(Marlik), 우라르투(Urartu), 루리스탄, 스키타이의 유물들을 다루고 있다.

뒤이어 알렉산더에 의해 제국이 멸망한 후 헬레니즘 양식이 티그리스 강변의 고대도시 셀레우키아(Seleucia)로부터 파르티아 예술로 전파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. 특히 넴루트산(Nemrut Dağ)은 유프라테스 유역과 시리아 북쪽에 건설된 콤마게네(Commagene) 왕국을 다스린 안티오쿠스 1세(Antiochus I, BC 69~34)의 능묘 유적으로서, 헬레니즘 문명기의 가장 야심찬 건축물 중 하나이다.

부조에 새겨진 왕들의 계보는 그리스 신화와 페르시아 전설이라는 2개의 갈래로 기록하고 있다. 이것은 이 왕국의 문화가 이중적 기원을 가진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. 끝으로 7세기 중엽 아랍의 침입 전까지 하트라의 건축과 조각, 로마와 비잔틴 제국과 대립하였던 사산왕조의 바위에 새겨진 부조예술을 소개하고 있다.